

고2 문학
금성

1(1). 춘설 - 기출 문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 열자 ㉠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A] < ㉡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

얼음 금 가고 바람 ㉢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 절로 향기로워라.

웅숭그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 핫웃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

1.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어미를 반복하여 시상의 통일성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느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색채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고유어와 예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여 토속적인 정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눈 온 아침의 차가운 기운에 대한 놀라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② ㉡ : 계절감과 어울리지 않는 눈에 대한 화자의 감흥을 반영하고 있다.
 - ③ ㉢ : 바람이 전해 주는 신선한 봄의 기운을 강조하고 있다.
 - ④ ㉣ : 봄바람에 날리는 옷고름을 통해 봄기운을 생동감 있게 보여 주고 있다.
 - ⑤ ㉤ : 겨울도 봄도 아닌 다른 계절을 느끼고 싶어 하는 화자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3. [A]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시각적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 ② 화자를 멧부리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③ 화자와 산의 거리가 가까워졌음을 보여 준다.
 - ④ 현재형 어미를 통해 내면의 생생함을 드러낸다.
 - ⑤ 문장의 호응을 깨뜨려 낯선 언어 감각을 보여 준다.

4.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눈과 추위에서 겨울의 기운을 느끼고 있다.
 - ② 화자는 우수절 초하루 아침에 문을 열어 먼 산을 보고 있다.
 - ③ 화자는 훈훈한 바람에 날리는 옷고름에서 봄의 향기를 느끼고 있다.
 - ④ 화자는 산봉우리가 이마에 와서 부딪치는 듯한 강한 느낌을 받고 있다.
 - ⑤ 화자는 다가오는 봄의 생동감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다.

5.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감탄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마음을 인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③ 공감각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복합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④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각 연에 2행씩 배치하는 형태적 유사성을 통해 시적 안정감을 꾀하고 있다.

6. 시상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담긴 시적 화자의 내면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젠 추위 정도는 견딜 수 있어.
 - ② 나른한 봄보다는 역시 겨울이 좋아.
 - ③ 서늘한 기운을 통해 봄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고 싶어.
 - ④ 서러운 현재보다는 인정 넘치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 ⑤ 봄이 왔으니 꽃구경을 가려면 옷차림을 가볍게 해야겠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 열자 선뜻!
 ㉠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옹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웅숭그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들고
 움짚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

7.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눈'과 '봄'의 관계를 창의적 관점에서 해석했다.
 - ② 짧고 간결한 표현으로 봄눈의 이미지와 봄의 정경을 나타냈다.
 - ③ '서늘옹고 빛난 이마받이하다'란 표현에서 화자와 산의 거리감을 없애고 있다.
 - ④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구사하여 봄의 생동감과 신선함이 생생하게 잘 전달된다.
 - ⑤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에서는 온몸으로 마지막 추위 속에서 겨울을 느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있다.

8. 이 시의 ㉠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은?
- ① 구름은 / 보랏빛 색지(色紙) 위에 / 마구 칠한 한 다발 장미 - 김광균, '데생'
 - ② 비로소 채색되는 유유(悠悠)한 침묵 / 꽃으로 수장(水漿)하는 내일예의 날개 짓 - 박두진, '강2'
 - ③ 삼월 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 나비 허리에 새 파란 초승달이 시리다. - 김기림, '나비와 바다'
 - ④ 떠받고 명고(鳴鼓)인데 잔가락을 온통 잊으오. / 떡궁! 동중정(洞中靜)이오 소란 속에 고요 있어 / 인생이 가을 같이 익어 가오 - 김영랑, '북'
 - ⑤ 철썩, 처얼썩, 철썩, 처얼썩, 철썩 / 제비 날아들 듯 물결 사이사이로 춤을 추어 - 정지용, '바다1'

9.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만물을 생동하게 하는 봄의 기운을 특이하게 눈을 통해 노래한 시이다.
- ②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은 환절기가 시간적 배경이다.
- ③ 이 시의 '철 아닌 눈'은 봄이 오는 것이 반가워 내리는 눈이다.
- ④ 눈을 내리게 하는 차가운 기운 속에 서린 봄의 기운을 싹 트는 미나리, 살아 움직이는 고기 등을 통해 표현했다.
- ⑤ 마지막 구절은 초봄의 추위 속에서 다가오는 봄을 온몸으로 느껴 보고 싶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0. 위 시에서 사용한 감각적 표현과 시구가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a) 시각적 이미지
- (b) 촉각적 이미지
- (c) 후각적 이미지
- (d) 시각의 촉각화
- (e) 시각의 후각화

- ① (a) - 이마에 차라
- ② (b) - 향기로워라
- ③ (c) - 파릇한 새순
- ④ (d) - 서늘옹고 빛난 이마
- ⑤ (e) - 바람 새로 따르거니

1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때 아닌 눈에서 더 완연히 느껴지는 봄을 노래했다.
- ② 봄의 도래를 노래한 고전 문학의 전통을 창의적으로 계승했다.
- ③ 눈과 봄의 관계를 창의적 관점에서 해석했다.
- ④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구사하여 봄을 생생히 묘사했다.
- ⑤ 짧고 간결한 표현으로 봄눈의 이미지와 봄의 정경을 나타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열자 ㉠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옹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 가고 ㉢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 옹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움짚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핫웃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

12.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따뜻한 봄바람을 기대했다가 놀라움을 느꼈다.
- ② ㉡ : 이미 겨울이 지나간 시기에 뒤늦게 눈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 ③ ㉢ : 훈훈하고 따스한 새로운 봄바람이 불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 ④ ㉣ : 문법에 맞는 표현은 '옹송그리고'이다. 몸을 궁상맞게 움크린 모양을 말한다.
- ⑤ ㉤ : 지난 겨울의 추억과 기억들이 멀어지기에 서럽게 느껴진다는 의미이다.

13. 이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뜻!’에서는 뜻하지 않은 봄눈에 놀라는 화자의 모습을 느낄 수 있어.
- ② ‘우수절 들어 / 바로 초하루 아침’에서 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군.
- ③ ‘이마받이 하다’는 눈 덮인 산의 차가움을 이마로 느낀다는 표현이군.
- ④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롭어라’는 봄의 도래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구절이야.
- ⑤ ‘꿈같기에 설어라’라는 표현은 따뜻한 봄을 소망하는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군.

14. 이 시의 내용 흐름을 다음과 같이 파악할 때, 근거가 되는 시어가 적절하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문을 여니 갑자기 먼 산에 눈 내린 것이 보인다.	⇨	문 열자 선뜻! ① 먼 산이 이마에 차라
↓		
때는 이른 봄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	우수절(雨水節) 들어 ② 바로 초하루 아침
↓		
그러고 보니 이미 봄기운이 느껴진다.	⇨	③ 서늘웁고 빛난 이마받이
↓		
봄을 맞아 생명이 생동하는 것이 느껴진다.	⇨	④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돌고 / 움짖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		
춘설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싶어진다.	⇨	⑤ 핫웃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15.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절기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감탄사를 사용하여 봄을 맞는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감각적 심상을 다채롭게 활용하여 풍경을 아름답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⑤ 1연에서 7연까지 모두 동일한 수의 행을 배치하여 형태적인 안정감을 얻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웁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②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③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웅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④⑤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돌고
 움짖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⑥⑦ 핫웃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

1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 모두 대상을 의인화하고 있다.
- ② ㉠과 ㉡ 모두 봄을 맞는 반가움이 담겨 있다.
- ③ ㉡과 달리 ㉠에는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 ④ ㉡과 달리 ㉠에는 겨울에 대한 아쉬움이 내포되어 있다.
- ⑤ ㉠에서 ㉡으로 공간이 이동되면서 계절의 변화가 심화되고 있다.

17.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③ 각 연이 2행으로 배치되어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④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를 통해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⑤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1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영탄법을 통해 봄눈에 놀란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시각의 후각화를 통해 향기로운 봄의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④ ㉣: '낯설다' 또는 '서럽다'는 의미로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표현이다.
- ⑤ ㉥: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19. 다음 중 이 시의 표현상 특징의 구체적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역설법	공감각적 이미지	중의적 표현
① 핫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② 먼 산이 이마에 차라	③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④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우라	⑤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20. ㉢에 사용한 감각의 전이 방법과 동일한 것은?

- ①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 ②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 ③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 ④ 향료(香料)를 뿌린 듯 곱다란 노을
- 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21. 이 시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이마에 차라'는 눈으로 덮여 있는 '먼 산'의 정경에 대한 화자의 느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어.
- ②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하다'를 통해 화자가 '먼 산'을 자신과 매우 가까이 있는 대상으로 느꼈음을 짐작할 수 있어.
- ③ '얼음 금 가고'는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어.
- ④ '아아 꿈같기에 설어라'를 통해 화자가 겨우내 웅크렸던 생명들이 생명력을 띠게 된 모습에서 서러울 정도의 아름다움을 느꼈음을 짐작할 수 있어.
- ⑤ '도로 춥고 싶어라'는 '철 아닌 눈'이 내려 더욱 암울해진 현실 상황의 고통을 이겨 내겠다는 의지를 반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어.

22.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 : '먼 산이 이마에 차라'는 시각적 인식의 산이 이마에 와 닿은 듯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 ② 3연 : '새삼스레'라는 시어를 통해 봄에 눈이 내린 낮선 풍경에 대한 화자의 느낌이 담겨 있다.
- ③ 4연 :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우라'는 시각의 후각화로 새하얀 옷고름에서 봄의 향기가 느껴지는 듯함을 표현한 것이다.
- ④ 5연 : '설어라'를 '낯설다'의 의미로 볼 때 화자는 모든 생명들이 추위와 겨울 견디고 봄을 맞이한 것에 서러움과 낯설음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 ⑤ 6연 : '옴짓', '오물거리는' 등은 시어를 정밀하게 다듬어 시 속에서 음악성을 느끼게 하고 있고 이것은 1930년대 시 문학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23. <보기>와 이 시에 공통적으로 쓰인 표현 방법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보기>

즐겁고 아름다운 일은 양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사랑은 양이 적을수록 좋은가 봐요.
 당신의 사랑은 당신과 나와 두 사람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양을 알려면, 당신과 나의 거리를 측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의 거리가 멀면 사랑의 양이 많고, 거리가 가까우면 사랑의 양이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사랑은 나를 웃기더니 많은 사랑은 나를 울립니다.

 ~ 한용운, <사랑의 측량> ~

①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 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

②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垂直)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이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③ 나는지금(至今)거울을안가졌소마는 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 잘은모르지만 외로운사업(事業)에골몰할게요//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反對)야마는/ 또꽤 닳았소/ 나는 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診察)할수없으니꼭 섭섭하오

- 이상, <거울> -

④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갔다 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 서정주, <견우의 노래> -

⑤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나./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거니.....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웃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 옹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움짖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

24. 이 시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花壇)에서 금잔화(金盞花)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꽃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 윤동주, <병원>

- ① 이 시와 <보기>는 현재형어미를 사용하여 삶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이 시와 <보기>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 ③ 이 시와 <보기>는 일상의 삶에서 느끼는 새로운 인식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④ 이 시는 <보기>와 달리 대상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보기>는 이 시와 달리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대비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25.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어의 대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법을 사용하여 형태상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③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색채의 변화에 따른 대상의 속성을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다.

26. 다음 중, ㉠에 사용된 표현법과 동일한 것은?

- ① 금빛 게을은 울음
- ②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 ③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 ④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 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2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봄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 ② 만물의 모습이 무척 의미를 가진다.
- ③ 겨울이 떠나가는 것에 대한 서러움을 느낀다.
- ④ 봄이 되어 자연물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⑤ 다시 찾아온 봄이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진다.

28. 윗글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봄의 따뜻한 기운을 느끼고 있다.
- ② 화자는 밤잠을 설치며 아침의 아름다움을 고대하고 있다.
- ③ 화자는 다가오는 봄의 생동감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싶어 한다.
- ④ 아침 기운의 차가운 기운에 옷깃을 여미며 서러움을 느끼고 있다.
- ⑤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은둔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29. 다음 <보기>를 참고할 때, ㉢에 사용된 표현법과 동일한 것은?

<보기>

그러나 봄눈은 밤낮 내리는 것이 아니잖는가. 그러므로 꽃샘이나 봄눈을 통하지 않고서도 스스로 겨울의 흔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꺼운 솜옷을 벗고 도로 추위를 불러들여야 한다. ‘새삼스레’, ‘철 아닌’, ‘도로’와 같은 일련의 시어들이 환기하는 것은 시간의 ‘되감기’이다. 그래서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다.”라고 말하는 지용의 역설(逆說) 속에서 우리는 스위스의 산골짜기 깊숙이 묻혀 살던 ‘드퀸시’의 오두막집을 상상하면서 쓴 ‘보드레르’의 글 한 줄을 생각하게 한다.

- ① 저 산(山)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 서산(西山)에는 해 진다고 / 지저귀니다.
- ② 아무도 그날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 ③ 바람은 넘실 천(千)이랑 만(萬) 이랑 / 이랑 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 ④ 그대는 아는가 /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는 것을 /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는 / 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 ⑤ 활자도 커다랗고 읽기에도 좋아라 / 목소리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 한 아이가 읽는 대로 따라 읽는다 // 이 봄날 쓸쓸한 우리의 책 읽기여

30. 이 시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새삼스레’: 시간을 되감아 새롭게 형성하는 창의성을 보인다.
- ② ‘이마받이’: 객관적 거리를 주관적 느낌으로 생성하고 있다.
- ③ ‘옹송그리고’: 작은 움직임에서 섬세한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
- ④ ‘설워라’: 대상의 경이로움을 관습적 어감에서 벗어나 표현하고 있다.
- ⑤ ‘철 아닌 눈’: 백색의 순수한 꽃망울을 계절감에 맞게 형상화하고 있다.

31. <보기>는 이 시에 대한 평론이다. 다음 중 이 시의 글쓰기에 대해 <보기>의 글쓰기가 평가한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보기>

이렇게 외부가 단절된 닫힌 공간과 그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만이 문을 열고 바깥세상과 ‘이마받이’를 하는 행복한 충격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햇웃 벗고 도로 춥고 싶다.’라는 지금껏 어느 누구도 느끼지도 말하지도 못하던 소원을 품게 된다. 그러한 소망의 원형이 바로 ‘봄눈’이며 ‘꽃샘추위’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용에 의해서 한국 시의 역사상 처음으로 ‘봄의 휘방꾼’이었던 ‘봄눈’과 ‘꽃샘’이 봄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시학의 주인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 ① 세상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예리한 시각을 가져야만 한다.
- ② 모름지기 시인이란 언행일치(言行一致)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 ③ 자신의 내면을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좋은 글이 될 수 없다.
- ④ 사물을 새롭게 보는 창의적인 시각은 예술 작품을 탄생하게 한다.
- ⑤ 일상적인 관념을 벗어나서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

정답 및 해설

1. <답> ④

이 작품은 시각, 촉각,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점 세련되면서도 예스러운 시어를 사용한 점, 봄에 대한 신선함과 설렘의 감정을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낸 점 등이 특징이다. 흰색과 푸른색 등의 대비되는 색채가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화자의 내적 갈등은 찾아볼 수 없다.

2. <답> ⑤

㉠~㉣은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계절의 변화에 대한 화자의 느낌을 부각하고 있다. ㉠은 놀라움의 정서를, ㉡은 철 지난 눈에 대한 감흥을, ㉢은 봄바람의 신선함을, ㉣은 그러한 자연에 감화된 화자의 흥취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에는 겨울이 지나감을 아쉬워하는 심리와 설렘 춤다 하더라도 봄의 상쾌함과 신선함을 만끽하고자 하는 심리가 모두 담겨 있다.

3. <답> ③

화자와 멧부리가 이마받이한다는 것은 눈 덮인 산의 서늘함이 이마에 바로 부딪히는 것 같다는 표현이다. 즉, 화자와 산의 거리가 사라졌음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4. <답> ①

화자는 눈과 추위에서 '겨울'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봄의 기운'을 느끼고 있다.
 ② 화자는 '우수절(雨水節)' 들어 초하루 아침에 문을 열어 산을 바라보고 있다.
 ③ 화자가 '흰 옷고름'에서 봄의 향기를 느끼고 있음을 4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화자는 1연에서 산봉우리를 보고 먼 산이 이마에 차다고 말하고 있다.
 ⑤ 화자가 7연에서 '도로 춥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봄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는 뜻이다.

5. <답> ④

'감정 이입'은 어떤 대상에 자신의 감정을 불어넣는 것인데, 이 시에는 그런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① '선뜻!'이라는 부분에 영탄법이 나타난다.
 ②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에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③ '서늘옅고 빛난'이라는 표현에서 촉각과 시각을 공감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⑤ 1연에서 7연까지 모두 각 연에 2행씩 배치하고 있다.

6. <답> ③

시적 화자는 춘설을 통해 봄의 기운을 느끼고 있다. 이에 햇옷을 벗어 봄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고 싶어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7. <답> ⑤

이 시는 춘설이 내리는 자연에서 느끼는 봄의 생명력을 형상화한 시로,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에는 추위를 뚫고 다가오는 봄기운을 온몸으로 완연히 느껴 보고 싶다는 뜻이 들어 있다.

① 겨울에는 눈, 봄에는 꽃이라는 정해진 틀을 깨뜨리는 창의성이 돋보인다.

8. <답> ③

㉠에는 공감각적 심상(시각의 촉각화)이 드러나는데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다.'(시각의 촉각화)에도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9. <답> ③

이 시에서의 '철 아닌 눈'은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는 눈이면서 봄이 오는 것을 미리 알리는 눈이다.

10. <답> ④

시각적 이미지: 빛난, 흰 옷고름, 파릇한 새순 / 촉각적 이미지: 이마에 차라, 서늘옅고 / 후각적 이미지: 향기로워라 / 시각의 촉각화: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서늘옅고 빛난 이마 / 시각의 후각화: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11. <답> ④

이 시에서 청각적 이미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시각, 촉각, 후각, 공감각적 이미지가 주로 사용됐다.

12. <답> ⑤

㉠은 춥고 괴로웠던 지난 겨울의 일들이 지금의 행복과 대조되어 서럽게 느껴진다는 뜻이다.

13. <답> ⑤

'꿈같기에 설어라'는 모든 생명들이 힘든 겨울을 견디고 다시 봄을 맞이하여 생명을 되찾게 된 현재 상황에서 그 사이에 살아온 과정을 되돌아본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봄을 소망하는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① '선뜻'과 '느낌표(!)' 모두 때 아닌 춘설에 놀라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다.
 ② 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을 꽃샘추위가 닥친 이른 봄

이다.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이 이러한 이른 봄에 해당한다.

- ③ '이마받이 하다'는 이마로 부딪친다는 뜻이다. 이 표현은 눈 덮인 산이 이마에 닿은 듯이 차갑게 느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④ 옷고름에서조차 봄의 향기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감각적 표현을 통해 봄이 왔음을 드러내고 있다.

14. <답> ③

'이미 봄기운이 느껴진다.'는 내용은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는 춘설을 보고 느낀 정서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봄기운과는 거리가 멀다.

15. <답> ①

- 이 시에서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우수절'이라는 구체적인 절기가 제시되어 계절적 배경이 이른 봄임을 알 수 있다.
 - ③ '아아 꿈갈기에 설어라.'에서는 감탄사 '아아'를 사용하여 봄의 기운에서 느끼는 반가움과 설렘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시각, 촉각, 후각 등의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봄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⑤ 이 시는 1연에서 7연까지 각 연이 2행으로 이루어져 형태적인 안정감이 느껴진다.

16. <답> ②

- ㉠은 '봄의 기운이 낯설면서도 꿈처럼 아름답다.'와 '너무 꿈갈아서 서러운 느낌까지 든다.'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에는 겨울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화자의 마음과 새봄의 기운을 더욱 선명하게 느껴 보고 싶다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이처럼 ㉠과 ㉡은 모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시구이나 공통적으로 봄을 맞이하는 반가움과 설렘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 ① 봄을 사람처럼 표현한 것이 아니라,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다.
 - ③ ㉠에는 봄을 맞는 반가움과 설렘은 드러나지만 의지적인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④ 겨울이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에 겨울을 더 느끼고 싶어 하는 화자의 마음은 ㉡에 드러나 있다.
 - ⑤ ㉠과 ㉡ 모두 방 안에서 봄눈이 내린 먼 산을 바라보는 상황으로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 있지 않으며, 계절의 변화가 심화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17. <답> ①

이 시는 '초하루 아침'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우수절'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 봄눈이 내린 아침의 풍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 ② '선뜻', '차라', '향기로워라', '설워라', '춡고 싶어라' 등의 영탄적 표현을 통해 봄을 맞이하는 화자의 반가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각 연은 2행씩 배치되어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④ 얼음이 금 가고 봄바람이 불고, 미나리 새순이 돋고 고기가 입을 오물거리는 모습을 통해 봄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 ⑤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서늘옅고 빛난',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등의 감각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18. <답> ⑤

- 이 시의 화자는 봄눈을 보며 봄을 맞는 기쁨과 설렘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은 봄기운을 더 느껴 보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담긴 표현이다. 또한 두꺼운 겨울옷을 벗고 추위를 느끼고 싶다고 하였으므로 겨울이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① '선뜻!'이라는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갑자기 내린 봄눈에 대한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얼음', '바람'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공감각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은 중의적 표현으로, '너무 꿈 갈아서 서러운 느낌까지 든다.'는 의미와, '다시 찾아온 봄이 꿈꾸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9. <답> ⑤

- 우수절은 계절적 배경과 관련된 표현으로 중의적 표현과는 관련이 없다.
- ① 논리적 모순이 나타나는 역설법에 해당한다. ② 시각의 촉각화로 공감각적 표현이다.
 - ③ '낯설다', '서럽다'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중의법에 해당한다.
 - ④ 시각의 후각화로 공감각적 표현이다.

20. <답> ④

21. <답> ⑤

22. <답> ④

23. <답> ②

이 시에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짐짓 의문 형식으로 제시하여 독자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설의법'이 쓰이지 않는다.

①, ③, ④, ⑤ 역설법이 쓰이고 있다.

24. <답> ③

25. <답> ③

시각적 이미지와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① 대조로 볼 수 있는 시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수미상관이란 시의 앞부분과 끝부분에 유사한 시행을 배열하는 것이다. 이 시에는 수미상관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④ 통사 구조를 반복하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⑤ ‘흰 옷고름’과 ‘파릇한 새순’에서 색채 이미지가 드러나긴하지만, 색채가 변화하는 모습은 없다.

26. <답> ②

㉠에는 시각의 촉각화라는 공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에도 같은 표현법이 사용되었다.

- ① 청각의 시각화
- ③ 청각의 시각화
- ④ 시각의 청각화
- ⑤ 청각의 후각화

27. <답> ③

봄이 되어 (모든 자연물들이) 조금씩 움직이며 살아나는 모습을 보며 화자는 봄의 생명력을 느끼고 있다. 여전히 남아 있는 겨울의 기운 때문에 아직까지는 몸을 작게 움츠리고 조심스럽게 살아나고 있지만, 화자는 그것이 꿈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 ‘꿈같기에 설어라.’라는 표현은 만물이 추위와 겨울을 견디고 봄을 맞는 과정이 무척 아름다워서 서러움마저 느껴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다시 찾아온 봄이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진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겨울이 떠나가는 것에 대한 서러움을 드러낸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28. <답> ③

시적 화자는 초봄의 계절에 아침에 문을 열고 펼쳐진 눈 내리는 광경에 흠뻑 젖어 자연을 예찬하고 있다. 비록 아직 겨울이지만 곧 오게 될 봄의 생동감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 ① 봄이 오긴 했지만 눈으로 인해 따뜻하지는 않다.
- ② 밤잠을 설쳤는지의 여부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차가운 기운을 느끼는 것은 맞으나, 서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설어라’는 ‘서럽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는 서러울 정도로 아름답다는 뜻이다.

⑤ 화자는 자연을 즐기고 있을 뿐 시 자체에서 암울한 현실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29. <답> ②

<보기>를 참고로 할 때, ㉠에는 역설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역시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는’ 모순된 표현을 통해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병들고 있다는 깊은 뜻을 드러내므로 역설에 해당한다.

- ① 반복법, ③ 반복법, 의인법, ④ 도치법, ⑤ 반어법

30. <답> ⑤

‘철 아닌 눈’은 봄에 내린 ‘봄눈’을 의미하지 꽃망울을 의미하지 않으며, 철에 맞지 않게 눈이 내린 것이므로 계절감에 맞지 않다.

- ① ‘새삼스레’의 사전적 뜻은 ‘이전의 느낌이나 감정이 다시금 새롭게’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되감았다는 표현은 옳다.
- ② 산은 객관적으로 멀리 있지만 이마에 와 닿는 것 같다고 표현함으로써 가깝게 표현하고 있다.
- ③ ‘웅송그리고’는 ‘몸을 작게 움츠리고’란 뜻이다. 뒤의 ‘살아난’이란 시어와 어울려 섬세한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설어라’를 ‘서러워라’로 해석한다면, 봄의 아름다움을 ‘서럽다’는 시어를 통해 형상화하므로 이는 관습적 표현에서 어긋난 것이다.

31. <답> ④

<보기>에서 “봄의 휘방꾼’이었던 ‘봄눈’과 ‘꽃샘’이 봄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시학의 주인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라는 표현에서 <보기>의 글쓴이는 창조적인 시학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기>에는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시인의 언행일치적 태도, 반성과 성찰, 아집에서 벗어나기 등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